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사상공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1. 개요

박○○은 12월 A사에 입사하여 약 11년 10개월간 항공기 부품의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2009년 10월 어깨부위 통증 치료받다가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분석

박○○은 A사에서 항공기 부품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5일 제며 교대근무는 없었다. 근로자가 사용한 장비는 두 종류인데 두손으로 작업하는 달팽이 핸드그라인더의 rpm이 25,000 정도이며, 오른손으로 주로 작업하는 사포 그라인더의 rpm이 12,00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포 그라인딩작업은 40%, 달팽이 그라인딩작업은 60%를 점유하였다. 박○○의 사상작업의 업무분석 결과, 어깨 관절의 외전 및 내회전을 유도하는 작업이 전체작업 중에서 74.3~78.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당 동작 중 실제 어깨뻘침/들림/벌림 동작이 차지하는 수준은 전체작업 중 35.3%로 나타났으며 이를 Von Stoffert(1985)등이 제안한 노출시간에 대한 위험도 분석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약한 위험-가까운 시일 내에 자세변화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은 있으나 우측 어깨손상은 없었다. 2007년 경추 염좌로 치료 받았다. 과거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 금연 상태이다.

2009년 3~4월경 통증 있었으나, 치료 받지 않고 지내다, 심한 통증으로 10월 T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009년 11월 우측 어깨관절 MRI 판독결과 회전

근개 손상은 확인 되지 않으며, 견봉하 점액낭염의 소견을 보였다. 2009년 12월 M병원 수술 기록지에 의하면, 상완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및 상완와관 절염, 부리어깨봉우리인대, 견봉 골극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박○○의 ‘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 어깨 외전 및 내회전 동작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으며,
- 항공기 부품에 의한 사상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작업자세등으로 인한 견관절에 부담이 있었으므로, 진단명이 다소 광범위한 정의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상완이두근 장두 부분파열’로 정정하여 표현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